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	인 도 자
※ 예배기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 14장(주 우리 하나님) .....	다 갈 이
※ 교 독 문	..... 16(시편28편) .....	다 갈 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찬 송	..... 194장(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	다 갈 이
예배기도	..... 1부 김경희집사 2부 박훈만장로	
응 답 송	.....	찬 양 대
이달의찬양	.....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갈 이
*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옵소서. *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히브리서 3:1 .....	김한순권사
찬 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b>“예수를 깊이 생각하라”</b>	
기 도	.....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94장(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갈 이
봉 헌	..... (중보기도사역팀) .....	다 갈 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성 찬 식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 은 이
※ 찬 송	..... 1장(만복의 근원) .....	다 갈 이
※ 축 도	.....	담임목사
※ 축 복 송	.....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b>찬양예배 / 오후2시</b>		<b>수요예배 오후7:30분</b>		<b>시백기도회(월-금)</b>	
오늘 찬양예배는 구역별로 모입니다. * 오후 1시50분에 본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구역별로 모입니다.		인 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찬 양 / 다 함 께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한마음기도		출애굽기강해	
		본 문 / 마태 25:14-30		<b>금요기도회</b>	
		말 씬 / 최세열목사		금요일 오후8시	
		“달란트의 비유”		개인기도, 합성기도	
		주기도문 / 다같이.		중보기도 / 소예배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다음주 기 도	1부	박기환집사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2부	강항구장로
	현금위원	5월 박상귀 정선례 박현순 정재영	다음주	1부	말 은 이
		6월 김기희 주종임 허 웅 김귀례	성경봉독	2부	정숙자권사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B	다음주 루디아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애자권사
헌신찬양	금주	중보기도사역팀	다음주	전도사역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 히브리서 3:1**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생각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 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한 복판에 있도록 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 받았습시다(엡1:4-6). 이 부르심에 있어서 강조된 말씀은 “우리를, 우리로, 우리를, 우리에게”라는 말에서 보듯이 ‘함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아 거룩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이는 도덕이나 수양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적인 구별이 아니라 존재자체, 곧 생명을 바꾸어 주신 존재적인 구별입니다(요1:12).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히2:11).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나를 귀히 여기듯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2.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불변한 것으로 타협이나 불순물이 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2:36).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행 4:12).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16,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3.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뿌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히2:17, 9:12).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엡 3:12).

대제사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히 4:14-16).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 그 분을 모시고, 그 분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 거룩한 형제가 되게 하신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도리를 위한 사도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합시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주제6:예배와 기도)  
5/29 제2과 참된 예배(요한복음 4장 19-24절)

**말씀살피기**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에 대하여 나누신 대화입니다. 짧은 대화지만 예배의 대상, 방식, 장소 등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묵상**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 또한 아닙니다. 특정한 문화나 시대정신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도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배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둘째.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자각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물질중심이나 예배의 외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이 예배를 이끌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아뢰며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산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안 됩니다. 사람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예배를 드려도 안 됩니다.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적용**

1.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2.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오후1시 당회실).
2. 오늘 찬양예배는 구역별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구역은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3. 전교인 성경읽기에 동참합니다.
4. 금요기도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합니다(금요일 오후8시 소예배실).
5. 노회소식 :
  - 성원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 망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홍강의 김성희 심복례 최승만 김귀례 김범진 임병호 김경희 김동기 김보겸 김근중 주종임 안해숙 윤종원 김인순 안진영 김기수 신혜영 김중천 이영선 한상호 차소라 김태라 양희임
- 감사헌금 : 김범진 김귀례 지국남 이현옥 김숙희 홍혜미 이문순 이석영 김동현 이종춘 심문자 양희임 황은상 함경숙 김지환 김옥길 여순애 무명 (선교) 김동현 (일천번제) 김동현 한재현 한진현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박기환 한옥자 방옥남 김선주 원혜경 김애자 박주한 선우명환 장영분 허 웅 김순남 심복례 최승만 심승기 이용훈 김영숙 정선례 강신근 한은미 사라희 조은미 양희임 김희선 김주희 이유자 마리아회 에스더회 김범진 김귀례 임병호 김경희 홍강의 김성희 이종춘 심문자 안해숙 김근중 주종임 윤종원 노순영 김옥길 여순애 한상호 차소라 김중천 이영선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하윤 최정현 안재빈 최지현

###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 도 실

###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벤허」는 루이스 윌리스라는 미국의 변호사가 1880년에 썼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싫어서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정밀하게 읽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에 관해서 생각했지요. 점점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것이 성경은 모두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것이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무릎을 꿇고 '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회심을 기념하여 쓴 것이 「벤허」입니다. 이 소설의 부제목이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벤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1959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종종 텔레비전에서 보게 됩니다. 변함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 예수님은 누구신가

미국의 대부호 코넬리우스 밴더빌트(Vanderbilt)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신앙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재물이 신앙이며 존재 이유였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 주었다. 그 곡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밴더빌트는 조용히 찬송가 가사를 음미했다. 찬송가에는 예수의 속성이 아주 쉽게 표현돼 있었다.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놓임, 죽을 자의 생명, 추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부활...' 그때 밴더빌트의 입술이 조금씩 떨려왔다.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과 지식,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겸손한 약자가 된다. 그리고 쥐고 있던 것을 모두 놓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빛을 찾는다. 신앙은 사망을 삼킨다. 신앙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킨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6-22호

2016.5.29.

### 성령강림 셋째 주일

죄악에서 구속하사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오순절 성령체험의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행여나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소서.  
 무디어진 첫사랑의 감격을 되살리게 하소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오늘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상처받은 교회에 새살을 돋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만 의지하며 부흥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임하소서.  
 일제강점기의 억울한 한을 치유하여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민족에 임하소서.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는 가족과  
 일상에서 내몰린 이웃을 위로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온 세상에 임하소서.  
 전쟁과 기아와 갈등으로 분쟁하는 나라와  
 온갖 재해로 찢겨진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크신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광양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인진영 최지현**